

1. 환 영 주일예배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후 2층 새가족실에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8월 다음 세대의 달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3. 2026년 여름 독서프로젝트 계시판을 참조하셔서 8월30일까지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점 심 특 식 급식 제공업체에서 오늘 삼계탕을 제공합니다.
5. 접 대 김종완,조명지 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장 호·최은경집사(요셉사랑방)의 장남 장주현군,
- 6.. 결 혼 8월22일(토) 오후2시 아펠가모 선릉4층 단독홀(서울)
*버스 : 22일(토) 오전7시30분 남부산농협앞에서 출발
7. 소등 및 전기 예배실이나 각 부서실을 이용하고 나가실 때, 반드시 선풍기나 제 품 확 인 에어컨, 소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한 예배를 위해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성경 본문

월(17일)	화(18)	수(19일)	목(20일)	금(21일)	토(22일)
사 28:14-29	사 29:1-14	사 29:15-24	사30:1-17	사30:18-33	사 31:1-9

< 교회 오시는 길 >

 일반버스 - 대연사거리·대연역·대연동제일은행 하차

 지하철 - 2호선 대연역 2번출구 (120m)

 주 차 - 교회 옆 주차장 이용

 부산시 남구 수영로 249번길 8

 Tel 051-628-3709



< 비전선언문 >

대동교회는 성령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 대동교회 3대 사명 >

1. 성령 충만한 교회
2.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3. 사망자를 세우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동교회

2026년 표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고전 3:9)

주 일 예 배

통권 59-34

2026. 8. 16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설립 1967년 2월 5일

11시 / 인도·설교 : 박현인 목사

* 입례송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참회의기도	다 같이
찬송	20장(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대표기도	정연수 장로
헌금	예루살렘 찬양대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여호수아 4:1-9, 23-24(구.323)
찬양	예루살렘 찬양대
설교	건넌 뒤에 돌을 세우십시오
* 찬양·결단	은혜
* 축도	박현인 목사

다음주 기도 : 김종완 집사

주일오후예배	인도·설교 : 김준석 목사	수요저녁예배	인도·설교 : 박현인 목사
찬양	다함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대표기도	이경자a 권사	합심기도	다같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15:25-32(신.122)	성경봉독	열왕기상 7:13-22, 40-51(구.521)
설교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인가?	설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찬송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축도	김준석 목사	축도	박현인 목사

다음주 기도 : 조선미 권사

사십 년을 기다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이스라엘 앞에는 하필 일 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넘치는 거센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현실은 오히려 더 막막해 보일 때, 하나님은 강을 피해 돌아가지 않고 그 한가운데에 길을 내셨습니다. 막막한 요단강 앞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세 가지 태도는 무엇일까요?

1. 길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 3:3~4)
사흘 동안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 낙심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어보는 낯선 인생길(질병, 노년,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중요한 것은 길의 지도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느냐'입니다. 통장 잔고나 검사 결과라는 요단강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질문) : 내가 지나보지 못한 인생의 낯선 길에서, 나는 눈앞의 막막한 현실(요단강)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언약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 기적보다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 3:5)
백성들은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방법과 기적에 집중했지만, 여호수아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며 마음의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문제 해결이라는 환경의 변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와 고집을 돌아보고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 힘입어 내 마음과 순종의 태도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묵상질문) : 하나님께 환경과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버려야 할 죄나 내려놓아야 할 고집, 혹은 미루고 있던 순종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습니까?

3. 물이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수 3:8, 15~16)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멈추거나 마른 땅이 드러난 뒤에 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대로 흐르는 강물 속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습니다. 순종의 발이 먼저 물에 잠겨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진 뒤에 움직이는 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관계의 회복이나 섬김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묵상질문) : 모든 상황이 완벽히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제적으로 내디뎌야 할 순종의 첫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십 일 조	김명희 김상규 남은옥 여윤기(김정임) 이경희 이항기 이해선 조영순 조용호 (김성희)
감 사 헌 금	박현인(이지영) 김동훈(오순미) 김상규(이화길) 김예성(예준) 김준석 남인우 (전선영) 문은신(김미경) 박채연 박형자 안경한(신창윤) 이정국(박선훈) 이해선(이항기) 전신옥 조영순 무명
일 천 번 제	김예진(에스더,석진,세현,희진) 이해선(이항기) 전신옥 최상배(장은경,기용,은혜)(2)
선 교 헌 금	김명희 김상규 손정의(윤정원) 신용종(성정희) 여윤기(김정임) 이경희 이해선 조영순 조용호(김성희) 장 호

Ⅰ 예 배 시 간 Ⅰ

구 분		시 간	장 소	헌금위원	
주 일 오 전 예 배		주일 오전 11시	3층 본당	8월	이이레 이경자b 전순영 하미애
주 일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		
새 벽 기 도 회		월 ~ 토 새벽 5시 30분	3층 본당	9월	이경선 오순미 박미량 정동순
수 요 저 녁 예 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본당		
청 년 회 예 배		-	2층 예배실	10월	성정희 박채연 조용호 김성희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 오전 11시	지하 예배실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층 예배실		

Ⅰ 섬기는 분들 Ⅰ

교역자		장 로	찬양대		
원 로 목 사	정병찬	원 로 장 로	전섭태 허승구	지 휘	장 호 시무집사
담 임 목 사	박현인	은 퇴 장 로	김상해 박종연	대 장	이경준 시무집사
사 역 목 사	김준석		남인우 한남열		
교 육 전 도 사	최시온, 이지영	장로	전성재 정연수		